

■ 광주 방문 김석동 금융위원장 ‘중소 금융환경 혁신 간담회’

“면책제도 도입 담보대출 관행 고칠 것”

“광주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생산물량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지난해 813만대를 생산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660만대, 내년엔 600만대로 물량을 줄인다고 한다. 지역 경제에선 최대 현안인데 금융기관의 대책은 없다”



중소기업 현장투어에 나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주)무진서비스에서 열린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체 대표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은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담보대출보다 더 비싸다. 이해할 수 없다”

21일 오후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주)무진서비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주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지역 기업의 애로와 불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 현장투어 형식의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안택수 신용보증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용선 (주)대웅에스엔티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백색가전이 멕시코·폴란드·베트남 등으로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인건비·물류비 등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삼성만 바라보는 협력업체들은 어떻게하란 말인지 답답하다”며 “금융권도 우리가 클렌드 위기 해소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김성봉 (주)한국정밀 대표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기업을 평가하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경제 환

경 탓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도 금융기관 지원 때문에 거짓 매출을 올리거나 적자를 알면서도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기준을 매출이 아닌 부가까지, 장래성으로 바꾸야 한다고 질타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유희열 (주)세화IMC 대표이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잘하는 곳 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은모 (주)무진서비스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환율 대응 시스템이 전무하다”면서 “환위험 예측가능한

시스템이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심각성을 알겠다”며 “은행권에 금융 지원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담보를 요구하는 보증관행이 여전하다”며 “담보보류가 신용이 중요하다. 정당한 심사와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기료 또?... 한전 “10% 인상”

정부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 지경부 “소액주주 손배소 고려 조치”

한국전력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에서다.

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경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일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 등 15명 가운데 사외이사 3명만 찬 12명이 참석했다.

물론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경부장 이에 따라 이번 인상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조 본부장은 종전까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전에 한전이 비공개로 인상 희망안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뒤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그것을 의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먼저 이사회 의결을 하고는 정부 단위의 협의 등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바뀐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이번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경수 전 한전 사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난 8월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에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 8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며 이를 당시 김경수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농기계·농자재 정보 한눈에

‘2011 국제 농기자재 전시회’ 30일부터 DJ센터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남도음식 먹거리 코너도

‘2011 국제 농기자재 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60여 개의 농기자재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최신 농기계와 농자재를 전시하는데 주력하는 농기계 산업박람회 성격의 띠고 있다.

축제의 형식과 더불어 진행했다면 이번 전시회는 실내에서 농기계 및 농자재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문 산업전시이다.

주요전시 품목으로는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로타 베이터 등의 대형 농·축산 기계를 비롯해 하우스 자동개폐기·스프링클러·안개식 무인방제기 등의 하우스 관리

퓨터 등 다양한 농기계와 자재를 볼 수 있다.

또한 전남 각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남도음식 먹거리’ 코너가 함께 운영된다.

농기자재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호남의 농·축산·화훼·원에 농가에 최근 출시된 농기계와 농자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LPG 충전소 판매가 인터넷 공개

지경부, 25일부터 시행

오는 25일부터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확한 LPG 충전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이내에 판매 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정·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업자 등은 매일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자동차용 LPG 충전소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충전소별 판매가격 등을 석유공사 오픈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LPG 가격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모든 업소가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LG그룹 3분기 4천억원 순손실

10대 그룹 순이익 대부분 급감

LG그룹 10개 상장사(지주사 제외)가 3분기에 4천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국내 10대 그룹의 순이익도 대부분 전분기보다 급감했다.

21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지주사 LG와 금융사를 제외한 LG그룹 11개 상장사의 순이익(연결 재무제표 기준, 12월 결산)은 지난 3분기에 4257억원의 적자였다.

지주사 LG에 대한 증권사들의 순이익 평균 전망치(시장 컨센서스)는 3102억원이다. LG 순이익 전망치를 합산하면 LG그룹 11개 상장사의 순이익은 약 1150억원의 적자로 계산된다. 이 그룹의 11개 상장사의 순이익이 적자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의 3분기 순이익은 4조2888억원으로 지난 2분기보다 2.1% 줄었다.

/연합뉴스

‘하림’ 화순에 800억 투자

최첨단 밀폐형 ‘오리고기 육가공 시설’

2014년 완공... 470여명 고용창출 기대



군의 경제 활성화와 부녀자 등 47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투자협약체결로 화순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돼 향후 화순군의 증진제조기업 투자 유치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하림은 화순군에 세계 최첨단 시설의 오리고기 육가공시설을 계획대로 완공하고, 친환경적이고 위생

적인 신개념 도입장과 오리고기공공장 건립 등을 통한 지역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이식 화순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최첨단 도입장과 오리고기공장이 화순에 유치되어 농업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코스피지수 1820.03 (-19.14)
 코스닥지수 498.36 (-4.73)
 금리 (국고채 3년) 3.37% (+0.01)
 원 달러 환율 1140.70원 (+1.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복장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어찜, 전복스팀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